제 26 회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 예 선
2022. 7. 27.(수) 9:00 ~ 17:00

• 장 소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내 별관 4층

• 본 선
2022. 7. 28.(목) 9:00 ~ 17:30

• 장 소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

• 문 의 02-566-9457
• 홈페이지 www.koreapansori.com

※참가비, 고수비: 없음

| 주최 |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사)한국판소리보존회

| 주관 | (사)한국판소리보존회

| 후원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제26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대회사



대 회 장 **정순임**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이사장

신록이 짙은 계절입니다.

코로나 19 질병으로 지난 2년여간 지구촌이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간이었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도 이 여파로 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은 황학루와 봉황대가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최호가 지은 황학루의 시와 이백이 지은 등금릉봉황대 시에서 인용하여

흥보가의 제비노정기, 심청가의 범피중류에 옛 선비들이 사설을 정리하였던 것 입니다.

본 회는 제26회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고저 합니다.

120여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한국판소리보존회입니다.

본 대회는 판소리의 유파 전승 보존과 판소리 인재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이 참석하시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대회장 정순임

경연대회 조직도

고 문	박성기 김종규 송정희 고광희		
대회장	정순임		
집행위원장	조동준	위원	박덕동 김봉곤 박영종 김영임
진행	노은주 김수지 조한규		

행사 일정표

일 정	부 문	시 간	장 소	비 고
7월 27일 (수요일)	명창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초·중·고), 다문화부(외국인), 장년부	08:30 ~ 09:30	풍류극장 로비	번호추첨
	해당부 전체 외 관람객 대회개회식	09:30 ~ 10:00	풍류극장	개회식
	명창부, 학생부(초·중·고), 장년부	10:00 ~ 17:00	풍류극장	예선
	일반부, 신인부, 다문화부(외국인)	10:00 ~ 17:00	별관 4층	예선
7월 28일 (목요일)	명창부, 일반부,신인부, 학생부(초·중·고), 다문화부(외국인), 장년부	10:00 ~ 16:00	풍류극장	본선
	시상식	16:00 ~ 17:30	풍류극장	시상식

※ 코로나 19 질병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제26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개최요강

대회개요

가. 대회기간 : 2022. 7. 27(수) ~ 2022. 7. 28(목)
- **•예선 :** 2022. 7. 27(수) (08:30 ~ 17:00)
- **•본선 :** 2022. 7. 28(목) (10:00 ~ 17:30)

※ 추첨은 8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나. 대회장소 :
- **•예선 :** 명창부, 학생부(초, 중, 고), 장년부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
- **•예선 :** 일반부, 신인부, 다문화부(외국인)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별관 4층
- **•본선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

다. 참가부문 : 판소리 – 명창부 • 일반부 • 신인부 • 학생부(초, 중, 고) • 다문화부(외국인) • 장년부

라. 주최·주관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사)한국판소리보존회 / (사)한국판소리보존회

마.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청, 서울시, 한국문화재재단, 국악신문

참가자격

가. 판소리

1) 명창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30세 이상의 남녀
2) 일반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남녀(대학 전공자 포함)
3) 신인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남녀
4) 학생부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남녀(학생 연령에 준함)
5) 다문화부(외국인) : 전국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6) 장년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65세 이상의 남녀

※ 타 대회 장관상 이상 수상자는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음.

※ 본 대회 심사위원의 제자는 참가를 불허한다. 단, 교차출전 할 수 있으며, 다문화부(외국인)는 제외한다.

예시
▲ 명창부, 학생부(초, 중, 고), 장년부 심사위원의 제자가 일반부, 신인부에 참가가능.
▲ 명창부, 학생부(초, 중, 고), 장년부 심사위원의 제자가 명창부, 학생부(초, 중, 고), 장년부에 참가불가.
▲ 일반부, 신인부 심사위원의 제자가 명창부, 학생부(초, 중, 고), 장년부에 참가가능.
▲ 일반부, 신인부 심사위원의 제자가 일반부, 신인부에 참가불가.

참가신청

가. 제출서류

1) 소정신청서(본회에서 배부)
2) 반명함판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나. 신청금 : 없음

다. 신청방법

1) 신청서 배부
- 기간 : 2022년 6월 27일 ~ 2022년 7월 22일 오후 5시까지
- 장소 : 우)06153 강남구 봉은사로406 (삼성동 112-2) 국가무형문화재 교육전수회관 802호 (홈페이지 공지사항 : 다운로드)

2)신청서 접수
- 신청자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장 소 : 우)06153 강남구 봉은사로406 (삼성동 112-2) 국가무형문화재 교육전수회관 802호
- 문의사항 : (02)566-9457 , FAX : (02)557-0746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 신청, 우편, FAX, E-mail 신청도 가능함.
  E-mail : pansori111@naver.com

제26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개최요강

대회상장 및 시상금

※ 대회 사정에 따라 상장과 시상금 내역은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점자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학생부는 고학년 순으로 수상하겠습니다.

※ 부정방지 : 대회의 공정성을 위하여 부정행위 적발 시 향후 10년간 본 대회 출전 및 심사를 금지함.
(동행한 가족이 소란을 피워도 동일.)

항 목	명 창 부	일 반 부	신 인 부	학 생 부			특별부문	
				고 등 부	중 등 부	초 등 부	다문화부	장년부
대 상	-	100만원	5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서울시장상	교육부장관상	국립무형 유산원장상	국립무형 유산원장상	서울시장상	국립무형 유산원장상
최우수상	300만원	50만원	3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국회의장상	문화재청장상	한국문화재 재단 이사장상	한국문화재 재단 이사장상	한국문화재 재단 이사장상	한국문화재 재단이사장상	국립무형 유산원장상	한국문화재 재단이사장상
우 수 상	10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문화재청장상	대회장상	대회장상	대회장상	대회장상	대회장상	대회장상	대회장상
장 려 상	부상 1명	부상 1명	부상 6명	부상 1명	부상 1명	부상 1명	부상 1명	부상 6명
	집행위원장상	집행위원장상	집행위원장상	집행위원장상	집행위원장상	집행위원장상	집행위원장상	집행위원장상

경연요령

가. 경연시간

1) 판소리

- **명창부** : 판소리 5바탕 중에서 자유선택 20분 이내
- **일반부** : 판소리 5바탕 중에서 자유선택 15~20분
- **신인부** : 판소리 5바탕 중에서 자유선택 5~10분
- **학생부** : 판소리 5바탕 중에서 자유선택 5~10분
- **장년부** : 판소리 5바탕 중에서 자유선택 5분 이내
- **다문화부** : 판소리 5바탕 중에서 자유선택 5~10분

※ 명창부, 일반부 참가자는 전 창자 구절과 예선 구절을 본선에서 재창할 수 없음.

※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지정 고수 있음.

수상자명단
대통령상

년 도	명 칭	종 목	대통령 수상자
1994	제1회 서울판소리명창대회	판소리	오 비 연
1995	제2회 서울판소리명창대회	판소리	방 기 준
1996	제3회 서울판소리명창대회	판소리	박 복 남
1997	제4회 서울판소리명창대회	판소리	강 길 려
1998	제5회 서울판소리명창대회	판소리	김 영 옥
1999	제6회 서울판소리명창대회	판소리	문 효 심
2000	제7회 서울판소리명창대회	판소리	이 순 호
2001	제8회 서울판소리명창대회	판소리	임 영 이
2002	제9회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조 순 묵
2003	제10회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	전통무용	홍 영 실
2004	제11회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고법	임 영 일
2005	제12회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강 현 복
2006	제13회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	전통무용	이 은 자
2007	제14회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고 현 미
2008	제15회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박 양 순

수상자명단
문화체육부장관상

년 도	명 칭	종 목	수 상 자
2013	제18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문화체육부장관상(판소리)	이 다 은
2014	제19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문화체육부장관상(판소리)	백 현 호
2015	제20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문화체육부장관상(판소리)	최 보 라
2016	제21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문화체육부장관상(판소리)	이 해 원
2017	제22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문화체육부장관상(판소리)	–
2018	제23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문화체육부장관상(판소리)	박 은 정
2019	제24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문화체육부장관상(판소리)	강 현 영
2020	제25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문화체육부장관상(판소리)	한 윤 경

수상자명단
국회의장상

년 도	명 칭	종 목	수 상 자
2015	제20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국회의장상	김 혜 영
2016	제21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국회의장상	조 임 천
2017	제22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국회의장상	신 정 혜
2018	제23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국회의장상	김 문 희
2019	제24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국회의장상	–
2020	제25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국회의장상	김 경 희

소춘대(원각사)와 한국 판소리 보존회 변천사

고종황제가 등극한지 40년이 되는 1902년에 이를 기념하는 서구식 예식인 "어극 사십년칭경예식 (御極 四十年 稱慶禮式)" 이 준비되었고 칭경예식을 위한 각종 신식제도와 설비가 마련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서구사회의 극장무도화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02년에 고종황제의 내탕금(왕실재정)으로 경희궁 흥화문 앞에 소춘대(笑春臺)라 불린 희대(戱臺)가 건축되었는데 육당 최남선은 이 희대를 일컬어 "조선 최초의 극장이요, 한참시절 런던의 로얄희대, 비엔나의 왕립극장에 비의(比擬)되는 유일의 국립극장인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서구식 극장을 표방한 희대(戱臺), 즉 소춘대(笑春臺)가 건립됨에 따라 그곳에서 연희할 광대와 기생들을 모아 만든 예인(藝人)들의 결사체라 할 수 있는 협률사(協律社)가 1902년에 결성되었다.

이 협률사(協律社)에는 김창환, 송만갑, 이동백, 강용환, 김채만, 장자백, 유성준, 허금파, 강소향 등의 판소리 명창과 경서도명창으로 가무별감을 지낸 박춘재, 문영수, 이정화, 홍도, 보패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1903년에 조선을 방문하여 "소춘대(笑春臺)"에 행해진 협률사 공연을 관람한 프랑스인 브루다레는 그 공연에 대해 "줄타기와 살판, 무동, 탈춤, 창극, 궁중무회의 춤 등 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률사는 조선팔도 예인들이 함께 모여 공연하는 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협률사는 점차 사사로운 성격의 결사체로 변질되었다.

1908년에 희대를 근거지로해서 이인직(이완용 비서실장)이 연극을 표방하며 원각사(圓覺舍)라는 연극장을 개장하자 협률사는 원각사 전속예인 집단으로서 『최병도타령』, 『수궁가』 등의 창극공연을 주로 수행했다. '신 연극'을 표방했던 원각사 시절은 협률사 소속의 명창 강용환, 김창환, 송만갑, 이동백 등이 중심이 되어 창극의 전성기였다.

1910년에 일제에 의해 한.일 병탄이 이루워지자 협률사 소속예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김창환협률사', '송만갑협률사' 등으로 나뉘어 지방공연을 하며 명맥을 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진 해산하였다. 1912년 원각사는 일제에 의해 민족정기를 말살시키기 위해 완전히 철거해버렸다.

1933년 5월 10일 여성 명창 김초향(金楚香)의 제안과 순천갑부 김종익의 후원으로 송만갑, 김창룡, 이동백, 정정렬, 박록주, 한성준 등 판소리 명창들이 중심으로 되어 산조(散調)명인, 경서도 소리명창, 민속 무용수들이 규합하여 한국전통음악의 공연과 전수를 목적으로 '조선성악연구회' (종로구 익선동 157)를 결성하였다.

'조선성악연구회'는 첫 작품으로 서울 동양극장에서 창극〈춘향전〉을 공연하여 큰 성공을 거둔 후 전국 순회공연을 하였다. 1936년 2월에는 소장파들이 중심이 되어 직속 전용극단 창극단을 결성하여 4월에 창단작품으로 〈흥부전〉을 공연한 후 〈숙영장자전〉, 〈별주부전〉, 〈배비장전〉 등을 공연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조선성악연구회마저 일제에 의해 해산되고 1943년 정남희(월북)등 4명의 원로명창들이 조선성악연구회 건물을 매각해버렸다.

1971년 판소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성악연구회'의 뒤를 잇고 판소리 전승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친목성격의 판소리보존연구회를 결성하여 판소리 유파발표회를 개최하였다.

1973년 고(故) 박녹주 명창이 중심이 되어 부군(김종익)이 설립했떤 조선성악연구회를 매각해버린 마음의 부담이 있어 다시 설립하고저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박대통령 지시로 문화재관리국 산하 법인 단체로 (사)판소리보존연구회를 인가받아 운영해오다가 2005년도 (사)한국판소리보존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춘대(원각사)복원의 필요성



115년 전의 "소춘대(笑春臺)"를 오늘날에 복원하는 의미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왕립(국립)극장을 복원한다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소춘대(笑春臺)"에서 남사당패, 판소리, 경서도민요, 궁중무용 등을 함께 공연했던 협률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복원하여 전통예술과 예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극장인 "소춘대(笑春臺)"극장과 우리나라 전통예술단체의 복원활동은 우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겨레의 얼을 되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한국판소리보존회에서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연과 강의 등을 통해
여러분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으로 판소리는
이제 전세계인이 함께 즐깁니다.



(사)한국판소리보존회

0615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802호
Tel : (02)566-9457 / Fax : (02)557-0746
www.koreapansori.com